

국문초록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 양준호

투고일자: 2010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본고에서는 ‘격차사회’ 일본의 고용 및 소득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관련 통계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일본인들의 ‘생활’패턴에 대해 큰 규정성을 갖는 저축 및 교육과 같은 개별 가계의 기본적인 요소의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생활’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현재 일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이는 노동자 간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을 ‘격차사회’로 급속하게 이행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고용 및 임금 등의 노동시장 변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 풍부한 자산을 갖지 못했던 가정, 구조조정예 의해 해고된 가장을 둔 가정, 나아가 기업 내부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초래한 양극분해 구조하에서 하방 이동하게 된 가장을 둔 가정의 수입을 크게 떨어뜨려, 기존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를 확보하게 하는 등, 이들의 빈곤을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에는 ‘격차사회’의 도래로 인해 각 세대의 궁핍화 현상이 현저했고, 또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접근의 양극화가 초래됨으로써, 결국 또 다시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 그리고 저축격차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교육격차’는 ‘학력격차’를 낳고, 또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는 결국 일본사회 전체의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

주제어: 고용격차, 소득격차, 저축격차, 교육격차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 비정규직과 제2안전망 | 은수미

투고일자: 2010년 12월 1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이 글의 목적은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의 일본 고용전략 변화를 파견법 개정 논의와 제2사회안전망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봄, 일본정부의 고용전략이 바뀐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짚어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파견법 개정 논의는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뚜렷하게 바뀐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85년 도입한 파견법을 1999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2003년 파견 허용 범위를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했던 것과 달리, 2008년부터는 제조업에서의 파견 및 일일파견 재규제, 고용의무 조항 삽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파견법을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2008년부

터 현재까지 취업연계부조 형태의 제2사회안전망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구성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중대한 변화이다. 일본정부가 제2사회안전망을 도입한 원인은 비정규 근로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커뮤니티 유니온(communit union)의 결성과 저항,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조밀한 시민사회의 형성 및 저항, 기존 노조의 정책변화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기여형 사회보험이라는 노동배제 시스템이 사각지대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가 노동배제 시스템의 변화인지를 좀더 살펴보고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사례로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규제, 파견법, 제2사회안전망, 조밀한 시민사회, 커뮤니티 유니온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과 시민참가 | 박희숙

투고일자: 2010년 12월 11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일본의 생활연구에서는 현재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이 생활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생활보장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1990년대의 시민참가를 분석한 결과, 생활자 정치는 정체되고 생활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개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당사자주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생활문제의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파견촌의 사례는 현재의 고용중심적 생활보장시스템의 허약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으로는 지역중심성과 공적 책임의 중요성, 당사자주권의 강화, 제도화와 시민의 협동,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주제어: 생활보장시스템, 시민참가, 사회적 연대

일본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 | 한영혜

투고일자: 2010년 12월 17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생활’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저항적 의미를 지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말이 대부분 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에 등장하는 한편, 정부의 행정개혁과 맞물린 시민활동 육성정책에 의해 생활 관련 시민활동이 증대하는 가운데, 오늘날 ‘생활’에 함축된 정치적·사상적 의미는 모호해졌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 글은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사례들에서 ‘생활’ 개념의 비판적·저항적 의미를 끌어내어 오늘날 일본사회의 맥락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고찰 대상은 1955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창립되어 노동자와 주민을 함께 조직화한 쓰루오카(鶴岡)생협, 1965년 베트남 전쟁 반대를 목표로 결성되어 개인의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서 ‘시민운동’을 추구한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헤렌), 1968년에 설립되어 여성 특히 전업주부층을 조직화하고 생활자 정치 운동으로까지 나아간 생활클럽생협 등 세 사례다. 이들은 노동자(+지역주민), 시민, 주부 등 상이한 계층을 인적 기반으로 한 만큼 서로 다른 저항의 지

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생활’을 의제화하는 관점이나 목표, 논리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생활’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끌어내어 운동의 논리에 자리매김한 점은 공통된다. ‘생활’은 ‘구조’(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지배당하는 민초들의 삶이며, 그 구조의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때, 운동의 주체와 추동력을 바로 그 생활 속에서 형성하고자 하며, 운동 담론에서 ‘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 내에는 서로 다른 축에 의해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지점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해서 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과거와는 다른 균열의 축들이 존재하여 새로운 주변적 위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생활’은 여기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제어: 생활, 생협운동, 베헤렌

특집시론 / ‘잃어버린 20년’간의 일본인의 경제생활: 가계구조·소비행동·생활의식 | 이수진

투고일자: 2010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 속에서의 개별 가계의 경제상황, 경제생활 및 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소비행동의 특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버블경제 붕괴기’(1990~1997)의 특징은, 가계저축률은 증가하는데 실질소비지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고 가격이 매우 싼 상품이 다수 인기를 얻었다. ‘경기침체기’(1998~2001)에는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활자들은 상품의 질에 비해 가격은 싼 절약지향의 상품을 선호하였다. ‘경기회복기’(2002~2006)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증가하였고, 소비 측면에서는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색다른 프리미엄상품의 등장 및 건강지향적인 생활자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불황기’(2007~2009)에는 소득 1분위 계층과 소득 V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의 차이가 커졌으며, 이를 반영하듯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어났다. 소비행동면의 특징으로는 ‘값은 싸지만 품질과 성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상품들이 선호되었고 절약지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버블경제 붕괴기, 경기침체기, 경기회복기, 심각한 불황기, 생활수준 저하, 절약지향

지각의 인식론적 경계 위에서: 아쿠타가와 및 구로사와의 작품에서 ‘라쇼몽’이 의미하는 것 | 장경렬

투고일자: 2010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문학 작품들인 「라쇼몽」(羅生門, 1915)과 「덤불 속」(藪の中, 1922),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영화 <라쇼몽>(羅生門, 1950)의 제목에 나오는 ‘덤불’과 ‘라쇼몽’이라는 표현은 소설 또는 영화가 이야기와 관련하여 암시하는 바를 함축하여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일 수 있다. 아울러, 소설과 영화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이해의 좌표로 우리를 이끄는 핵심 단어일 수 있

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각각의 작품에서 ‘덤불’ 또는 ‘라쇼몽’과 같은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우리는 기호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의미와 관련하여 이른바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텍스트는 이를 생산한 사람의 표면적 의도와 관계없이 또는 의도에 반(反)하여 무언가의 의미를 드러내듯 감출 수도 있고 감추듯 드러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논리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 「라쇼몽」의 ‘라쇼몽’은 우리가 인습적으로 상정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해진 공간을 암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덤불 속」의 ‘덤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 또는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문제되지 않는 공간을 암시하는 기호일 수 있다. 논의를 좀더 극대화하자면, ‘덤불’은 인간의 언어와 의식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동시에 진실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기준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terra incognita)이라 할 수 있다.

영화 <라쇼몽>의 ‘라쇼몽’은 소설에서 그러하듯 말 그대로 성안에서 성밖으로, 성밖에서 성안으로 통하는 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이 기호가 두 세계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고 모호해진 공간만을 지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덩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성안의 포청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한 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즉, 나무꾼과 승려——이 모여 있는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연과 문화, 미지(未知)의 세계와 기지(既知)의 세계, 혼돈의 세계와 질서의 세계가 만나는 중간 지점, 또는 두 세계 모두에 대한 이해가 시도되는 지점이다. 즉, 두 세계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소속되지 않은 것이 ‘라쇼몽’이다. 논의를 확대하는 경우, ‘라쇼몽’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나무꾼과 승려의 진술이 암시하듯 무의식이 끊임없이 의식의 세계로 편입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심리적 공간이자,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이해 노력을 통해 의식이 끊임없이 무의식을 지배하고자 하거나 그 세계로 파고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심리적 공간일 수 있다. 요컨대 의식의 ‘중간 영역’(twilight zone)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라쇼몽’이라는 기호가 암시하는 바일 수 있다.

우리는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 진리로 믿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 중심과 주변의 구분이 확실해지지 않은 상황을 이른바 포스트모던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화 <라쇼몽>이 ‘라쇼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 또는 우리를 위해 예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포스트모던적 상황일 수 있다.

주제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구로사와 아키라, 「라쇼몽」, 「덤불 속」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 영화 「엑스포70 동경작전」과 「돌아온 팔도강산」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표상 | 김태식

투고일자: 2010년 12월 2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본 논문은 ‘국익’에 환원되는 대상으로서 재외동포를 다루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

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엑스포70 동경작전」(1970)과 「돌아온 팔도강산」(1976) 두 편의 영화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국가나 민족 등의 근대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규범성을 심문하는 존재로서 디아스포라를 재정립한다. 그리고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의 관계 속에서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정치의 한 측면을 밝혀 보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재일조선인 표상은 국가의 국민적 기억 만들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과 한국의 내셔널리즘에 내포된 모순을 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젠더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시에 국가나 민족 등의 근대 개념을 다시 묻는 기제도 존재했다. 또한 젠더질서도 표상에 반영되어 왔다. 국가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야말로, 재일조선인이나 재외동포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일 것이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 영화, 젠더

반일과 역사 화해 | 김봉진

투고일자: 201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본 논문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풀고 '불행한 역사'를 극복할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반일과 역사 화해'라는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 먼저 반일 속엔 양의적이지 않은 모순된 성향과 일본을 향한 욕망과 조리가 담겨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해 반일은 일본에 대한 신뢰/불신과 애증의 양면감정에서 생긴 성향인 것이다. 그 진정성은 일본의 부(負)의 유산에 대한 비판·성찰을 촉구하는 일에 있다. 다음으로 반일의 궁극 목표는 반일의 내과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반일을 문제가 아닌 찬스로 삼아 그것과의 '생성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 화해란 가해국과 피해국이 역사 극복의 도정을 함께 걷는 과정이다. 거기엔 사죄와 용서, 그리고 마음과 뜻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로써 죄와 불화 요인을 해체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원·이항대립 사고는 초극되어야 한다. 그 대신 화에 바탕을 둔 삼원사고와 그 논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사 화해의 목표는 '횡단매개적이지 공약가능한' 도리의 공유에 있다. 그 도리의 첫 범주는 '반식민주의', 즉 식민주의의 해체이다. 이와 함께 과거의 망령과 근대의 주박, 근대주의와 자기/자국중심주의 등도 해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 화해의 현안과 방법으로 '한(韓) 지우기' 전통의 해체, '한국병합' 관련조약의 해석, 식민지 지배 책임의 실천, 남북분단의 해소와 냉전사고의 탈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반일, 화해, 역사문제, 반식민주의, 이원·이항대립 사고, 삼원사고, 근대의 주박, 해체

영문초록 Abstract

The Japanese Classed Society and Reproduction of The Poor _ YANG Jun Ho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and income gap disparity in Japan, or so-called "kakusa-shakai" phenomenon,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lues that infer the changes in the "life" of the Japanese people over time. For, this sort of disparity in labor market has caused the disparity of the basic factors within each household, such as saving and education, which used to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the Japanese 'life pattern'.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Japan has shifted into a 'society of disparity'. The growing employment disparity means that the number of permanent employees is gradually decreasing while that of temporary employees is rapidly increasing, which causes serious income gap among the workers. This extreme polarization phenomenon of Japan's labor market is being observed in various patterns, all of which leading to the reduction of family income. The examples of these patterns include: temporary employee's family, low income family, the family with no particular asset,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has lost his/her job due to structural adjustment, and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went through lowering of his/her wage due to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under the bipolar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We know that their poverty-levels have been gradually worsening because these families withdraw from the saving deposits for their living expenses. Likewise, the advent of 'disparity society' accelerates the immiserization phenomenon, which is becoming ever more conspicuous when we look at the polarized access for children's education. Ultimately, we observe the establishment of the vicious cycle, which fixates the employment disparity, the wage disparity, and the saving disparity. The education disparity begets educational background disparity, and this causes the worsened employment and wage disparities. Finally, it reproduces the 'disparity' within the entire Japanese society.

Keywords : employment differentials, earning differentials, saving gap, inequality of access to education institution

Changes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Temporary Employee and the Second Social Safety Net _ EUN Soo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hift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from "deregulation" to "stronger regulation") with focus on the current discussions regarding the revisions of the Worker Dispatch 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cond social safety net. It will try to analyze the causes of such changes in the strategy and to identify its implications for Korea.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Worker Dispatch Act took a drastically different cours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Act was enacted in 1985 and it was changed from a positive system to a negative system in 1999, and in 2003 the job scope was expanded to manufacturing sectors. But since 2008, the Diet has been deliberating on an amendment bill, the gist of which consists of the re-regulations on dispatch as well as on daily dispatch in manufacturing and the new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of direct hiring.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a second social safety net in 2008 in the form of job-seeking assistance. It is a major change in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until then, consisted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The second safety net was put into action following the increase in non-standard workers and the working-poor, the birth of community unions and their resistance, the rise of tight-knit civil society such as the anti-poverty network, and the changes in the union policies. Third, Japan and Korea are similar in a sense that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company-level unionization, and the labor-exclusionary system of contribution-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unprotected workers. Thus it would be valuable to assess whether the changes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signal a change in the labor-exclusionary system, and whether they could be a reference point when we address Korea's social issues.

Keywords : Regulations, Worker Dispatch Act, second safety net, tight-knit civil society, community union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 since 1990 _ PARK Hee 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fe security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 Since the 1990's,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has been in the state of dysfunction. "Politics for the people" are not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 independent movements by the disabled people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ws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ized social insurance system. "Hakenmura Problem" show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ivelihood security system, whose main concern lies in the issues of unemployment. Today's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raises important issues such as decentralization(localization), empowerment of the people, cooperative systematization by the citizens, and social solidarity within the workings of the system.

Keywords : livelihood security system, citizen participation, social solidarity.

The Meaning of "Seikatsu"(Life) in the Citizen's Movement in Contemporary Japan

_ HAN Young Hae

The social movements in postwar Japan utilized the word "seikatsu"(life) as a strategic concept that contains both critical and resisting implications against the existing system. However, since the 1990s, it slowly became hard to fi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notations within the word "seikatsu", as almost all political parties began using the term in their political propaganda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standpoints and civic activities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ir related policies promoting civil activitie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forth the critical and resisting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seikatsu", drawing from the cases of civil movements that took place in the postwar period, and also to search for the possibilities that place those implications within the context of today's Japanese society.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ree cases: Tsuruoka Co-op initiated by the labor unions in 1955 and encompassed both workers and local residents; "Peace to Vietnam! Citizen's Association (so-called Beheiren), formed in 1965 as a protest against the Vietnam War and proposed 'Shimin-undo'(citizen's movement) as a new type of social movement that was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s by the individuals, and Seikatsu Kurabu(Life Club) Co-op, established in 1968 with the participation of housewives and developed later into life-

political movement. These three organizations were characterized by different human bases, namely labors (and the residents), citizens, and house-mothers, therefore also differing in their standpoints, purposes, as well as the logics for the ways in which they represented the issues of "seikatsu". However,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pulled out a constructive meaning from "seikatsu" and built it in to the logic of each movement. "seikatsu" is the livelihood of the grass-roots people who are invaded and controlled by the system, and those who are marginalized attempt to secure their independence and subjectivity through the social movements. When this happens, the actors and the energy of the movements attempts to found itself on the basis of their livelihood, which gives the central meaning to the discourse of the movements. There are different axes of cleavages within the society, and around each axis exist those who create the ideology and the logics of the movements for the given base of their social identity. In today's Japanese society, a new cleavage is creating a new axis as well as the new periphery, around which the concept of "seikatsu" could hold an important strategic implication.

Keywords : seikatsu(life), seikatusha, citizen, citizen's movement, cooperative movement, life politics, community

Comments & Essays / Japanese Economic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Lost Two Decades _ LEE Su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economic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prolonged period of economic downturn after the burst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1990s. I divided the post-bubble economy period into four phases according to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at describe the lives of the Japanese people.

"first period"(1990~1997)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 savings rate and non-expenditure rate, while the real expenditure rate decreased. Low-priced goods experienced a great success. During the "second period"(1998~2001), both re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expenditure decreased sharply and people began to prefer purchasing money saving-oriented goods, whose quality is quite higher compared to its price. The "third period"(2002~2006),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among those whose income rate is at bottom 20 percent. The consumers were choosing the health-conscious foods and premium goods whose prices were not too out-of-range. The final phase, or what I call "fourth period"(2007~2009), was the time during which the gap between the top 20 percent and bottom 20 percent groups was widened. Reflecting this slump period, about 5 percent of the people answered that they didn't feel the improvement of their living standards. They pursued to attain low-priced but high-quality goods.

Keywords : period of bubble economy, low standard of living, saving-oriented

On the Epistemological Borderline of Perception : What the 'Rashomon' Refers to in the Works of Akutagawa & Kurosawa _ JANG Gyeong-ryul

'Rashomon' and 'grove,' two words that appear in the titles of the literary works by Ryunosuke Akutagawa, "Rashomon"(1915) and "In a Grove" (1922), or in that of the motion picture directed by Akira Kurosawa, *Rashomon*(1950), could be conceivably a series of signs that sum up the thematic implications of the stories or the movie. They also could be considered as some valuable keywords that would lead us to the frame of understanding which, in turn,

might help us more perspectively understand the stories or the movi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ck down what these signs or keywords signify in each work.

Most of all, the idea of the unconsciousness of the text could be brought up in relation to the meaning which a sign might either reveal or conceal: a text can furtively reveal or perceptively conceal some hidden meanings regardless of the ostensible intention of the writer or the director. When we analyze the text with this idea in mind, we can argue that the 'Rashomon' of Akutagawa's *Rashomon* refers to a space where the distinction, which we conventionally assume to exist between good and evil, justice and injustice, or civilization and savagery, is disrupted. Meanwhile, the 'grove' of his "In a Grove" refers to a space where the man-made standard of moral judgment is not applicable or what we call "true or false" does not matter at all. To push the argument a bit further, the 'grove' could represent a *terra incognita* which exists outside of human language and consciousness or beyond our own epistemological criteria of truth.

'Rashomon' in Kurosawa's motion picture could literally indicate a gate itself that leads in and out of the town, just as it does so in Akutagawa's story. And yet, the motion picture reveals that it does not simply indicate a space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worlds is disrupted; also, it represents an intermediate point where we, through and along with the characters in the movie, the woodman and the monk, try to make sense of, or understand, what have happened in the grove and what they have talked about in the court yard of the town. In a sense, it refers to a mid-point between the culture and the nature, the known and the unknown, and the order and the chaos, not entirely belonging to either world. To expand our argument, we might say that it denotes a mental arena where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eet or clash, a psychological twilight zone where the unconscious is ceaselessly being translated into the conscious, as we see, through the woodman's and the monk's attempts to narrate what have happened. And again, through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what have happened, the conscious is continually trying to remain in control of, or delve into, the unconscious. We believe that is what the sign, 'Rashomon,' suggests in the motion picture.

When we encounter a situation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becomes blurred, the criteria of the true and false remains undetermined, o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is unclear, we call it a post-modern one. In some ways, what the motion picture, *Rashomon*, was trying to show us and anticipate for us could be this kind of post-modern situation.

Keywords : "Rashomon", "In a Grove", Ryunosuke Akutagawa, Akira Kurosawa

Who Wants Diaspora? : Representation of Zainichi-Chosenjin on *Expo70 Tokyo Operation* and *Returning to Paldogangsan* _ KIM Tae Sik

This article takes a critical view towar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overseas Koreans which have been dealing with overseas Koreans who were subjected to serve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s'.

First, it carries out a discourse analysis on two movies, *Expo70 Tokyo Operation*, and *Returning to Paldogangsan*, in order to redefine the term "diaspora" as a necessity for the interrogation against the ideologically-defined modern concepts of "state" and "nation."

Then, by asking a critical question of "who needs diaspora?", I tackle some political aspects that surround zainichi in relations to the Korean nationalism. It aims to expose the following

issues: the representation of zainichi as a simultaneous creation by a nation-state, along with the makings of the nation's collective memory that are apparent in Korean movies; the representation of zainichi that embraces contradictions within Korean nationalism; and the gender norms that strongly operate within these movies. A nation-state has always needed Korean diaspora for both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It is needless to say that politico-economic aspects were operating behind the representation of diaspora who were being the subjects of either exclusion or inclusion, but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system through which the modern concepts, such as "nation-state" or "nation," were repeatedly questioned. Therefore, it would be an important insight on the studies of both zainichi and oversea Koreans, when we take a critical approach by arguing that a modern state actually "needed" the diaspora.

Keywords : Zainich, diaspora, nationalism, movie, gender

Korea's Anti-Japan Sentiment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History _ KIM Bong Jin

This paper reexamines two topics, Korea's anti-Japan sentiment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history, in search of the solutions for the historical conflicts in order to overcome the 'unhappy'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I believe that, within Korea's anti-Japan sentiment, there is a sense of ambivalence and contradiction, as well as the desire and the logical admiration toward Japan. In other words, the anti-Japan sentiment evolves from the dualistic nature of trust and distrust, as well as love and hatred, toward the neighboring country. In essence, these conceptions are to encourage Japan to criticize and reflect her own negative legacies. Secondly, I will argue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anti-Japan sentiment lies in its implosion. Therefore, Japan must consider it as a chance, rather than as a problematic issue, in order for the "generative" dialogue to take pl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concile with the historical issues i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two nations make a journey together. We need apology and forgiveness, as well as the heartfelt desire for a true reconciliation. In doing so, all the factors that cause this disharmony must be deconstructed and annihilated. In this process, we need to think three-dimensionally in order to create harmony, rather than being overwhelmed by the dualistic/dichotomic way of thinking. Above all, the goal of reconciliation is to hold the 'transversal' and 'commensurable' morality in common. The first category of this morality is anti-colonialism, i.e. the deconstruction of colonialism. And we also have to overcome the ghost of the past, the curse of the modernity, modernism, and egocentrism. Lastly, I suggest several issues and methods for reconciliation, which include: the de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tendency to "erase" Korea;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related to 'Korean Annexation'; the actions to be taken in order to discharg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the solutions for the "divided peninsula" and the overcoming of the Cold-War id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Keywords : anti-Japan, reconciliation, historical issues, anti-colonialism, dual/dichotomic thinking, three-dimensional thinking, the spell of the modern/modernity, deconstruction